

저는 「과제2」의 담배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파는 가게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규칙만으로는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흡연에 대한 이 문장에서 소개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담배 피우는 사람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지켜질 때만이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담배에 대한 규칙은 아직 충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장소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담배연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피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규제가 꼭 법률화된 규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규제라는 것은 TV나 책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편이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합니다.

완전하게 담배를 금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담배를 피울 때 어떻게 해야하는 가하는 방법을 가르키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